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83호
10월 16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권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www.aogk.org) 이메일: mok2677@naver.com 전화: 02)2677-9935~7 FAX: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8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남녀교회
■ 문의
02)2675-5181~3

여성 역차별·기독교 탄압·성별 파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포괄적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지난 10월 6일(수) 한 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사회자 겸 시민 공청회로 열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참가한 단체들(한국교회총연합회, 세계성서화 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 반대기독교연대, 서울성서화운동본부)는 ‘동성 입장 분’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외치지만 여성을 역차별 할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며 남성과 여성의 성별 제도가 파괴 되어 기독교연합회 소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이 법안과 관련된 국회 상황을 전했으며, 사전에 전 중앙대 법대 학생, 윤선별, 홍재민 법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안이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발제하고,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정 서울교육서평학회부위원장 대표, 이신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대대학원 교수, 김동관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병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등을 외치지만 여성을 역차별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제도가 파괴된다”며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역차별 당할 수 있다. 양원에 따른 학문의 자유를 위축 내지 억압할 수 있다. 종교, 특히 기독교 탄압의 소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 “제대로 보면 양쪽면 보이지만 실상은 양의 발을 쓴 아예 불타다”며 “과거 공산주의 기세를 부릴 때 이 방법으로 많은 성과를 봤던 불타다”며 “지금도 신화로 변한 불타다의 종교를 뿌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 이사장 최낙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혜만 서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국민이 TV 앞으로 일어나야 할 때”라며 “가치관이 혼란해져서 시대, 사람들 통해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세 역사가 이루어질 바란다”고 전했다.

이제를 막아(은근교회)는 “한국교회는 사회적 평등과 참된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떤 법이든 이 법의 제정을 사회개혁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완전한 폭력이다. 도리어 법 제정을 따는 것이 한국교회 사회개혁의 사명”이라며 “한국교회는 사회개혁운동의 정당한 권리와 가치에 의해 가능했던 일이다. 때문에 이 법은 결코 양방면 그릴듯하고 내용은 성적지향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러 “도덕을 최소화할수록 좋은 법이다. 법이 도덕을 최소화하면 사회는 더욱 황폐해진다”며 “성적 지향을 합리화·발제화해 준다고 그들이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질서, 공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2021. 9월~10월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온라인) 개별청원

주관: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 성서화운동본부, 진평, 동반연

* 각 지역별 일정은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국민청원

국민에게 들립니다

일시	장소	일시	장소
9.9 pm 7:30	전남	10.4 pm 2:00	인천2
9.24 pm 2:00	부산	10.5 pm 2:00	경남
9.25 pm 7:00	경북	10.6 am 10:00	서울
9.28 am 7:30	인천1		
9.29 pm 2:00	전북		

#국민역차별

#평등의역설

#평등법이란 무엇인가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청원

국민에게 들립니다

정부를 지키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밝혔다.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본질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법안이 찬성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두에게 존중 받을만한 태도와 방식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3월 31일 차라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그 제안에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성별’과 ‘성별 정체성’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답변을 받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밝혔다.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본질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법안이 찬성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두에게 존중 받을만한 태도와 방식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3월 31일 차라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그 제안에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성별’과 ‘성별 정체성’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답변을 받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2021. 9월~10월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온라인) 개별청원

주관: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 성서화운동본부, 진평, 동반연

* 각 지역별 일정은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국민청원

국민에게 들립니다

‘휴거되기를 사모하면서 삽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5,36)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핵전쟁, 유성체와 소행성의 지구 충돌, 무분별한 남획과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자연훼손, 핵전쟁과 세균과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전쟁, 쓰나미와 지진과 화산 등의 자연재해, 환경 파괴와 남획과 가공품 만능 전염병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들에 의하여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에 하늘이 불이 되서 떨어지고 원수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지각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구속에 대한 전례는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년왕국에 관한 성경 말씀은 일관된 해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이 있고 기록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도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6).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천년왕국에 관하여는 무천년설, 후천천년설, 전천년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천년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도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학설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도들이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견해와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대다수 교파에서는 성도를 이 대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학설을 따릅니다.

전천년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할

국가인권위원회 강력 규탄

동성애 동성혼 반대국민연합(동연), 진정평등동반과 남녀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남녀반대) 및 복음법회(복법)는 표현의 자유를 말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익추제를 거부할 권리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소위 혐오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예(이예)는 제주도 도의원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이라고 발표했다.

동연, 진평, 복법법회(복법)는 법치정당도 무시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난 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말할하는 국민의 입에 침을 뱉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재권력의 횡포를 참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국가인권위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말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익추제를 거부할 권리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소위 혐오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예는 제주도 도의원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이라는 발표를 했다.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하위권이란 것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와 수치를 금할 수 없다.

인권위에 묻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내 세 글자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치정당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치위법권 기관인가? 행정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소위 혐오표현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령 근거가 없음에도 멋대로 혐오표현을 결정하고 발표해버리는 대법원과 무효한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성 때문에 과거에 국회에서 소위 혐오표현 규제를 일관없이 골라내 철회한 전례도 있고, 더욱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이렇기 무관심을 두고 있는데, 만약 법이 제정 된다면 얼마나 마음껏 만나 접촉을 할 인권 위 세상이 될 것인지 눈앞에 닥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사명을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런데,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말할하는 국민의 입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결코 불가 할 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익추제를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라는 인권행동을 싫어한다는 것은 가차없는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혐오가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기치권을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모든 국민은 국가인권위를 지지한 해라고 동성애를 좋아한다는 의견을 표출하라고 강요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인가? 위헌적 일방적 동성애 독재적 결정을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 (2연으로 이어짐)

대선 후보 간의 인신공격 중단하고 소신·정책·비전 대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가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야가 막판하고 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상대편을 몰아내고 할려는 인신공격 경선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각 정당을 대표해 대선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선 소신과 정책, 비전에 대한 골목골목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국민이 TV 앞으로 일어나야 할 때이다. 그러나 지금의 예비후보 경선을 보면 야가 모두 정책 대결은 심정적이고 오로지 상대를 비난하는 언어폭력에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국민은 오로지 상대를 짓밟아 내가 산다는 이

전투구(전투구)를 굳이 야가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대선 후보가 된 둘 누가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미래로 밝게 할 희망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신의의 본질인 애대함에서 애대함의 자유마저 박탈당했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절박함으로 내몰려 목숨을 걸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가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런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

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국가 대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에 국민을 외면한 채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해 싸우는 경선 난투극을 보는 국민의 가슴에 선 분노가 차올라 오를 정도다.

지금 여당은 지난 8년의 국정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였는지 되돌아보고 자중해야 할 판이다(태평통제)해야 할 때다. 또한, 야당은 지난 재보선의 승리에 도취된 채 과거로 돌아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은 다음 대통령을 얼마나 대한민국을 바르게 인도할 자질과 능력, 인품을 갖춘 인물인가가 궁극적 기준이다. 대선을 앞두고 야가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욕망과 자기관리에 대한 자질을 간의 즉각적인 실천을 써먹을 승자 없이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라.

야는 이제라도 유권자인 국민을 낮추고 폄하하는 저질 난투극을 전면 중단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토대를 통한 건강한 정권교체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송태성 목사

예장정통총회, 제57차 총회 성료

총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해 모든 임원 유임



대한예수교장로회(성통)총회는 제57차 정기총회를 지난 9월 27일 오전 11시 평안교회(담임 양정섭 목사)에서 개최하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해

전 임원을 유임시켰다.

이날 1부 예배는 상임집무 임장대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이영춘목사의 기도, 임장대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양정섭 목사는 장 41:37-46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요셉은 피난민정난 생애를 보낸 사람도 최후까지 승리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자가 된 사람이었다. 첫째, 요셉은 꿈을 지닌 사람이었다. 둘째, 요셉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셋째, 요셉은 관용의 사람이었다. 넷째, 우리는 정의보다도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셉처럼 신의 승의자로 하나님의 중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성통)총회 제57회 정기총회
일시 : 2021년 9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평안교회 2층 대예배당

이영춘 부총회장(성통)목사는 민경구 목사(부서기)의 기도, 전대식 목사(서기)의 총대 보고에 이어 양정섭 목사(총회장)가 정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포했다. 전 회의록 보고를 비롯한 사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 보고, 임원회보고는 유임됨대로 반기로 결의했다.

신안건의로 있어 사업안과 예산안은 유임됨대로 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회의록 채택은 차후 88차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기타 안건은 접수되는 대로 임원회에서 처리

리하도록 했으며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고전 4:1-2남독후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폐회했다. 제57차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양정섭 목사 △부총회장 이영춘 · 양성은 · 한세진 목사 △상임집무 임장대 목사 △부총무 이세춘 목사 △집무총무 김두경 · 강대하 목사 △서기 전대식 목사 △부서기 민경구 목사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 △보통회록서기 이영숙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김광성 목사 △감사 한성욱 · 이은혜 목사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사)한국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과 (사)한국조정학회의 교류협력MOU 체결

(사)한국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위원장 이영복, 이하 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은 지난날 28일 기독교교중앙에서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 이하 조정학회)와 조정에 관련된 연구와 업무의 협력을 위한 교류협력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을 지낸 박재윤(73·사법시절98) 전 대법관과 장우진(75·사법연수원 47) 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 부위원장, 오재정(60·19기) 조정학회 부회장, 최재석(68·군법 88) 조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조정에 관련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 이영복 위장은 "분쟁조정은 기존의 소송제도의 대안(Alternative)으로서 출현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분쟁해결의 포터본(Forer)인 우호한 해결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은 분쟁해결기로서 선구적, 진



보적, 지도적 기능을 함으로써 종전보다 활발한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조정학회와의 MOU체결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의 설립목표는 법원과 독립적 조정으로 교회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소송제도에 치우쳐 법원만 바라보지 않게 하고, 교회가 신앙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었다"며 "그러나 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의 최근 활동을 살펴보면 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으로 조정으로 위촉받아 해결하는 극히 소수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었다. 기독교교회화해중재원은 이번 한국조정학회와 교류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중재원의 역할을 본래의 목적인 교회가 신앙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교회분쟁을 해결 하는 역할을 두고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세대 사역 단체 9곳에 격려금 전달

한장총 다음세대위원회 주관, 단체들 어려움 위로 및 격려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중준 목사, 이하 한장총) 산하 다음세대위원회(위원장 최우식 목사)는 지난 10월 7일(목) 한장총 사무실에서 다음세대 사역 단체 9곳에 격려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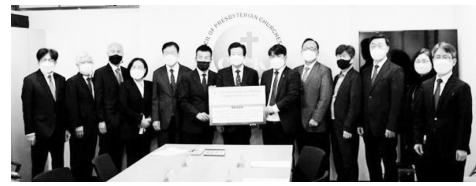
"다음세대를 세우자"는 주제로 여러 사업과 행사를 계획하는 한장총은 388기들

맞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음세대위원회 사업과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차에 회기 종료와 앞두고 다음세대 사역을 감당하고자 수고하는 단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자, 다음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9개 단체에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한 것이다.

다음세대 사역 단체 격려금 전달식은 한장총 다음세대위원회 최우식 목사의 사회로 다음세대위원장 김순규 목사의 기도, 대표회장 김중준 목사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다음세대 사역의 중요성과 사역을 언급하면서 다음세대 사역단체들을 격려했다. 총무 황원식 목사는 이날 지원금을 받는 단체 9곳에서 온 참가자들을 소개했으며, 단체별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을 받은 단체들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한국어린이요육신교회,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파이디온교회, 청소년교육선교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청소년종교애경운동본부, 위기청소년전교연합 등 9곳이다.



순교자의소리, 재정 투명성 제일 밝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투명성 인정

한국순교자의소리(VOM Korea, 대표 현숙 폴리)가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에서 새롭게 재정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협회 측 황준환 대표는 "순교자의소리는 2014년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의 모체인 미국 복음주의교회 재정책임위원회에서 처음 재정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015년 동 위원회의 지부인 동 협회가 설립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재정 투명성을 인정받아 왔고, 올해에도 새롭게 인정받았다"라고 밝혔다.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모든 사업단체는 재정 책임성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오즈를 기부자들은 어떤 사업단체에 기부할 때, 자신들이 기부한 돈이 과연 자신들의 의도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 확신이 있지 않다면"고 했다.

순교자의소리는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최고의 국제적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협회와 위원회에 먼저 인증을 요청했다고 밝힌 현숙 폴리 대표는

"20년 전 한국순교자의소리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기독교 단체들이 지역 법규를 따르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성정에 명시된 더 높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중앙, 총회장 취임예배

조옥선 총회장, "한국교회 개혁의 밑거름이 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1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 소에 소재 성민수영관(예림교회)에서 제5회 총회 총회장 조옥선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했다.

취임식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총회서기 한기용 목사 사회로, 경안노회장 김두형 목사의 기도, 사울중노회 노회장 김익만 목사의 성경봉독, 경안노회 중경노회장 원재현 목사의 특송(창가), 직전총회장 김경숙 목사의 빌 4:7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평

강이란 제목의 설교, 전 총회장 서유민 목사의 축도로 시작했다.

이아전 2부 취임예식은 총무 이승진 목사의 사회로 총회총회장 취임과 수여, 꽃다발 및 선물증정, 직전총회장 공로배 수여 및 꽃다발과 선물증정, 총회장 빌립보전 전달, 총회장 인사말로 진행됐다.

이아전 김경숙 목사(9월 20일) 추모기도 및 위로금 전달, 설립 승계자 김희이 목사의 유가족 대표로서, 전국노회장 자기소개, 상임부 부장 및 임원소개 등이 있었다.

3부 회의에는 상임부 계파 개원전, 장조중

영교회 사립학원서 사정전, 여목사회 임원연임에 대한 건, 사단법인 정경개정에 관한 설명, 인사 및 광고 후 부총회장 김수자 목사의 축사로 마무리됐다.

총회장 조옥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랑스럽고 소중한 합동중앙총회에 승낙 회자들에게 부족한 중을 재교회 총회장으로써 위 주님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서 "교단에 지난 상처를 밀어붙이고 하여 교단 목회자들과 함께 조용한 변화와 개혁을 시작하여 한국교회 개혁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1면에서 이어짐

인권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권을 캠퍼스(campus culture) 캠페인이다. 캠퍼스 캠페인 유명하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노병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SNS 등을 통해 대중의 공감을 받고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란·토베 추제를 보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소년법원을 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을 캠페인 운동에 대한 인권위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반대파를 혐오 표현이라며 금지한다

면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치인에게 반대 토론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를 선진제국의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권위는 이 나라를 조지 오웰의 1984로 만들고 나서 인권독재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신은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아슬한 꿈과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 방에서 빠진 인권위가 점점 더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법정행정도 무시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건

제야 균형에서 벗어난 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즉시 포기하라. 표현의 자유를 박탈시켜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권력의 횡포를 전사하지 않을 것이요,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권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10월 7일

복음신문기자
동상에 동성애 반대 국민연립(동성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
법안을 반하는 전국연합평등연

백석대 간호학과,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리더십과 사랑, 배려 갖춘 나이팅게일 후예 될 것"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간호학과는 최근, 교내 백석을 소강당에서 2학년 재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올해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선서식을 진행하지 못한 3학년 학생 167명과 올해 선서식 대상인 2학년 학생 194명, 총 36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재학생들은 꽃밭에 불을 밝히고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다짐하며 섬김의 리더십과 사랑, 배려를 갖춘 나이팅게일의 후예로 거듭나기 위해 선서문을 낭독했다.

백석대 임소연 간호학과장은 "361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 공간에서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선서식을 진행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이팅게일과 같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어 세상 속 빛과 소금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제주지역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 개최

지난 9월 30일(목) 오전 10시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도 6개 지역 교회협의회 연합으로 제주시에 소재한 삼일교회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교회와 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드린 1부 예배는 교단협의회 부회장 이상구 목사(중앙교회)의 대표기도, 제주도교회연합회회장 박희순 장로(우리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신촌교회)의 사도 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자백을 어떤 길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합심기도회에서는 제주 도정을 위하여 사기포교협의회 회장 진성기 목사(호수교회), 나라를 위하여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항 집사(진영세바교회), 한국교회와 제주교회를 위하여 나약사관제주사관기독교인 사무총장 김봉현 집사, 건강가정기본법 및 행동법 제정을 위하여 통합비판사회대책위원회 이경우 목사(시온교회)의 인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어 2부 세미나는 교단협의회 수석부회장 강성조 목사(제주동안교회)의 사회로 총남기독교

교총연합회 직전회장 김성윤 목사(나눔의교회)가 강사로 나서 이 나라의 정세와 병행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반성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한다고 강조했다.

3부에는 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혜춘 목사(김성교회)의 사회로 교단협의회 부회장 박영태 목사(중앙교회)의 성령서 발표를 통해 이 정부는 잘못된 이념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바른 정치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짜인권, 가짜평등, 가짜평화를 반대하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76년의 세월은 가시밭에서 파란바다 한 뼘 기 백합화와 같은 기적이었다. 모진 시련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산업화와 민주화, 압축 성장과 동시에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건국과 산업화 과정에서 어두운 그늘이 있었으며 이들의 회생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제주 도민들과 기독교지도자들은 해방 이후 지난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밀거름이 되어 주신 선조들과 도움을 준 우방국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안정된 평화로운 나라, 더 나아가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다 음 -

1.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땅에 메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磨)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관련된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 결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된다. 이에 제주에 있는 애국시민들과 기독교지도자들은 “이 모든 책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에 있으며,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2. 현 정부는 이념정치에서 벗어나 나라를 살리는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보수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여 전직 대통령들과 전직 관료들을 대거 구속하였고, 정의와 평등과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헌법을 파괴하고 있고, 기회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판파적으로 오로

지진 정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집행하도록 하며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3. 북한의 2500만 동포의 인권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현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의 폭력성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하여 보안법철폐, 평화선언,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북한의 2500만 동포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무조건 대화를 하기 위하여 국방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국민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피하고 2500만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이기에 보안법철폐, 평화선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4.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고 성 평등한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멈추어야 한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가졌던 인권, 가졌던 평화와 평등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개념이 사제된 변질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건강가정」을 포함하여 「가정」이란 단어를 모두 삭제하거나 무리하게 가족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법률의 가족의 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동성커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유럽식 가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가정을 해체하고 비정상적인 가족을 만들겠다는 아주 나쁜 개정안이다.

그리고 이삼만 의원 발의한 평등법의 주요 문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한 사회를 혼란케 하는 매우 나쁜 법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는 젠더 평등,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왔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 한다.

5. 최근에 이르러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교회가 침체 되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걱정되는 큰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려오고 있다.

다구나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에 대한 걱정이 아만자만이 아니다. 헌법 가치를 모호한 쪽으로 변질시켜려는 음모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시작된 체제 전쟁 중에 있다. 권력의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법치가 무너졌다. 오늘의 현실은 가짜인권, 가짜평등, 가짜평화와 관련된 민족주의로 포장된 잘못된 진보이념이 국민을 속이고 인본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제주의 교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은 결과 행위를 바르게 하므로 존경받는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하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현 정부에 대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회복됨으로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천명한다.

2021년 9월 30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겨례를 사랑하는
제주기독교 교회지도자 세미나 참석자 일동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

회 장	류승남 목사 (신촌교회/통합)
부 회 장	강성조 목사 (제주동안교회/고신) 이상구 목사 (중앙교회/기감) 강두성 목사 (위미교회/통합) 박영태 목사 (제주중앙교회/합동)
총 무	최병준 목사 (수산김리교회/기감)
부 총 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예하성)
서 기	김용범 목사 (제주주님의교회/합신)
부 서 기	이순구 목사 (제주안디옥교회/기하성)
회 록 서 기	최창환 목사 (청수교회/기성)
회 록 부 서 기	김경태 목사 (제주동산교회/합동)
회 계	김태영 장로 (제주성산교회/통합)
부 회 계	최하성 장로 (제주제일교회/기성)
감 사	한성길 목사 (제주서광교회/고신) 노찬환 목사 (제주열리는교회/대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셔야”

교회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바로 잡아야

(사)예총연 교회제도찾기협 제14회 전국대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이사장 유영섭 대표회장 강영희, 이하 예총연) 기독교교회 제도찾기협의회(회장 강정열 목사)는 지난 10월 7일(목) 오전 11시 여천도회관에서 제14회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일약이런 교회의 본질과 제 모습을 찾기 위해 밀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철저한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기독교교회 제도찾기 제14회 전국대회는 예수님을 찾는 제자(요 13:34-35)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정열 목사의 인도로 드러진 예배는 강영희 목사의 대회사로 이어 이한중 목사(기독교회 부회장)가 기도하고 권이수 목사(기독교회 부회장)가 기도했다. 1:15-25 말씀을 본독한 후 심한섭 목사(예총연 자문가) 위도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제 모습 찾기'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강영희 목사는 “코로나19로 회교회를 향한 함박이 거세짐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독교교회제도찾기 전국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축복했다.



말씀을 전한 심한섭 목사는 “하느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교회의 머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맡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 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을 받기보다 국가가 교회의 영역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 교회의 머리는 대 목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심한섭 목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지는 큰 모퉁이를 뚫어놓았다. 대목령 부재의 현실 속에서 적절한 대안을 하지 못하고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현황기관들은 모인 중심, 행사 중심, 실적 중심의 시스템에서 위기 대처를 위한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고안해야 하며, 각종 위기 대처를 위한 ‘제1차원’ 대목령을 작성하여 소속기관들을 도모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수 목사(기독교회 회계)의 헌금기도에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조재호 목사(전혜수 목사, 김

순일 목사, 박선명 목사 등 기교회 부회장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세계선교를 위해, 예총연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고, 김영춘 목사(기교회 부회장)의 성령으로 감의문을 제창하기도 했다.

예총연 회원들은 스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본받아 청렴결백한 목회자가 될 것 스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목회와 신령안치의 목회자가 될 것 스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목회자가 될 것 스그리스도의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결의했다.

박선명 목사(기교회 총무)의 광고에 이어 유영섭 목사(이사장)가 축도함으로 전국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총연 사무총장 박정호 목사는 “제일이 아저됨과 혼란이 가득할수록 교회에 세상을 향해 타협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승실대, 개교 124주년 맞아 기념예배 드려

코로나19로 유튜브로 생중계

승실대교회(총장 장남식) ‘개교 124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0월 8일(금) 오전 10시 한경직기독교회 김복순 목사(총장)의 주례로 개교 124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기념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기념예배 교목부설정의 인도로 스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본받아 청렴결백한 목회자가 될 것 스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목회와 신령안치의 목회자가 될 것 스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목회자가 될 것 스그리스도의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결의했다.

박선명 목사(기교회 총무)의 광고에 이어 유영섭 목사(이사장)가 축도함으로 전국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총연 사무총장 박정호 목사는 “제일이 아저됨과 혼란이 가득할수록 교회에 세상을 향해 타협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승실의 역사는 비로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이며 ‘임술했던 시기에 주교와 민족을 위해 헌성을 감수하며 나라의 독립에 이바지한 민족사’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대학들은 잔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정제정리의 위기가 속해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며 “승실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숭상하고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후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기 건축자 49명 33명이 아뢰었다.



기운실, 대장동 토건 부패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차단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체가 조 금씩 드러나고 있다. 5,900여대가 입주한 크고 작은 개발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1조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4천여억 이상이 몇몇 민간개발업자들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불로소득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고위 발조인들과 정치인 등이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흘려다녔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광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모든 소득을 다 쏟아부어도 전성주로 오르는 것 같고 전체 값을 감당하지 못해 계속해서 집을 팔고 집을 사면서 파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개발업자들의 부도덕과 비리,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며 이익을 취했던 고위 발조인과 정치인의 부패는 반드시 살상이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 검찰과 감사에 대해서도 사수자를 동원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시점에 이사로와 연관된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지의문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과 국민의 분노를 생각할 때 검찰과 감사에 조속히 사수를 끌고 상의에 모든 진실을 밝혀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법원에 엄중한 처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하여 부동산 개발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갖 불법의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불법과 부패의 중심의 알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민간 입자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부동산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시민 주력 정책에 재투자 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어떤 할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고 시민들과 청년들이 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정치권과 대주주자들은 사명을 감아야 할 것이다.

“다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권력을 미워하여”(사 61:8)

2021년 10월 3일
(사)기독교인사실운동

21C국제부흥사협의회 임원 취임 및 축하예배

대표총재 박형섭 목사, 대표회장 장요한 목사 취임

국제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장요한 목사)이 21C국부흥회는 지난 9월 30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식 초로 초 배비회(대표인 박형섭 목사)에서 임원취임 및 축하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영성회복 및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예배는부흥회장장요한 목사의 사회로 운영총재 박형섭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최정희 목사의 성경봉독, 실무총재 유영희목사의 국가특별찬양 대표고문 이윤규목사의 고전 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위 대회를 사모비율이라는 제의의 성령으로 인도했다.

예배는 계속해 부흥회 임원총 목사의 헌금기도, 상임회장 김도원 목사의 헌금송 후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실무총재 박형섭 목사, 한국교회 영성회복 및 부흥을 위해' 실무총재 박형



철 목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운영총재 김도원 목사가, '21C국부흥회 임원취임을 위해 감사 찬양곡 목사가, 남북평화와 통일 민족통일화를 위해' 실무총재 김경수 목사가, '이데올로기 대안과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위해' 실무총재 안은하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2부 축하와 격려의 시간은 부흥회장장요한 목사의 사회로 대표총재 박형섭 목사의 환영인사, 대표회장 장요한 목사의 설립취지 설명, 지도위원 장정현 총장의 격려, 수석총재 장사무열 목사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목양각편

이효상 목사 // 시인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위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회장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출산율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구 문제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치 경제 활동 인구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담 부담이 증가해 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구 정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연 미비 보고서 2040에서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된 선진국은 예외 없이 국력 감소가 나타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일본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사례로 들었다.

이러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은 소극적 수준에 불과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은 소극적 수준에 불과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은 소극적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의 출산장려예산이다. 2021년도 현재 저출산 정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2021년도 2조4천억 원(2020년 2조4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부 예산은 많고 있지만, 이 예산은 한계도 한계도 있다. 2020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저출산 지원

예산은 모두 200조 원 밖에 못됐다.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1%가 증가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정치 주변에서 '이이 카운트'에 저출산 예산의 턱을 봤다는 가정을 하기 어렵다.

오래전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지난 해 이미 현실화됐다. 2020년 강원도에 모든 시·군에서 사망자가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 모래 전역에서 일어난 건 사상 처음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비교를 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강원도 시·군에서 사망자가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 모래 전역에서 일어난 건 사상 처음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자 수가 2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대 비례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서 인구 자연 감소했다. 세대수는 1인 세대 급증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0

대 이상 인구 자연 감소의 1수준에 달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심해졌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818,201,9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줄어든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을 줄이는 이들이 채우고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예산이 매년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젊은 부부들은 애채움지 못한다.

2018년 이후 처음 1명대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명에도 못 미쳤다.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30,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면서 출산율은 오히려 4.5에서 1.1만으로 추락했다. 결혼과 출산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여건의 지위 향상과 자기 결정권이 생기면서, 비혼과 출산은 이제 선택사항이 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미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는 성공적인 가족정책 사례로 손꼽힌다. 프랑스는 저출산·고령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극복한 대표적 사례이자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가운데 독보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사례이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점이 프랑스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신혼부부 모두를 서울이나 프랑스로 이주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가족 정책 전반적인 큰 틀에서 시행할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충남의 경우 결혼한 지 2년 안 된 청년 부부가 공공아파트에 입주한 뒤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더 행복할 주택'을 공급한다. 방 구로는 기존 임대아파트보다 큰 최대 30㎡(7.8평)이 더 작게 설계해준다.

충북 제천시(시)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최대 5,500만 원까지 주택에 대출금을 내주는 '3세(세)만 5,000만 원 이상 주택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 원, 둘째 1,000만 원(4세 이하)을

급) 첫째 4,000만 원(4세 이하)을 한 달 지급을 지원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총 5,500만 원의 은행 빚을 지자체가 대신 갚아준다고 한다.

사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출산 장려 관련 현금 지원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자 지원, 현금 지원, 육아 서비스 공급, 조세 정책 등 뒷받침을 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가족구성원들이나 사회 시스템이 함께 결혼, 가사노동, 출산, 양육, 교육 등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 주지 않으면 경제, 직장, 주거, 세금 등의 정책은 뚝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 때부터 대책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세액공제 혜택도 주되 출산장려금에 해당하는 만큼 저소득층 젊은 신혼부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현금 지원 형태를 늘려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다. 저출산 내버려 두는 것은 비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심적 정치자 결단,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다. 박수사태 반인 젊은이들이나 수단이 있는 시민들의 삶이 이토록 파탄된 것은 정말로 부동산 정책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출산은 '취임-결혼-육아' 등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과 관련된 문제로 장기적으로 부지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일·가정양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비결'이 아닌 내일을 위한 투자이다. 우리 정부의 여성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도 우물거기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 있는 가족 정책을 모은 컨트롤타워로 피어와야 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지론에 나서야 한다. 문장시의 경우 신혼 첫 번째에 출산가정이 탄생해 3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문장시 제2조도 김도(65)·김도 씨(60) 부부의 낳아온 2남2녀의 3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1,800만 원, 넷째 이상 30만 원이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합리적 문장시는 2019년부터 출산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출산율은 32.8%로 전년 대비 14명(%) 증가했고 이는 경제도 내 유일한 출산 증가 기록이다. 출산 정책시대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다음세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

202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강사
이상규 목사
백산대 석좌교수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강사
김완인 목사
교단 총경총회장
목양제일교회 담임



강사
정영목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이사장
부산성경교회장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학장
한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부산성경교회장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세움교회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356번길 47(전포동))
전화문의 051) 731-4202)

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이사장 정기영 목사 · 학장 한명점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다운로드 → 교단서식 →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 2부 작성 →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위원장 심의 →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1. 9. 09(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1. 9. 3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 고시료 : ① 납부일: 2021.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2. 2. 7(월)~8(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용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차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돌봄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경계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용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용열 목사 수석경례)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청
- 2014. 12. 13 이천시청 표청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청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청
- 2020. 12. 18 이천시청 표청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융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용열 목사)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 논평

언론중재법은 권력비판 봉쇄하는 문재인 보호법이다

101세의 철학자 김경서 연세대 명예교수는 “언론 중재법은 언론중재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원로의 고언을 들어야 한다.

실례! 배는 다시 한번 여자가 언론 중재법안의 핵심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에 법안 자체를 폐기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같이 찬성한다.

1.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이다. 언론 자유 신장이 아니라 통제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공과 같다. 공과가 막대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 문제가 있어도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집권세력에서 강행 통치시키고 저지하느니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언론중재법은 자유언론이 아닌 국민의 일 관리를 통제하고 정부 위임을 위한 법이다. 언론과 세력의 언론 단체들이 반대해도 집권 세력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다. 동양과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이 의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을 통제하는 법이다.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는 후진국이 아니라 좀 국가다. 모자를 벗기면 머리가 나타나듯이, 말만 중재지 내용은 통제다. 언론과 선진국들이 한국이 저수준에 안 됐다” 불린다. 김경서 교수는 “현안이 생략돼 보니 언론 통제는 자유 언론의 신화”라고 규정한다. 민주와 주권이라는 운동권 집권 세력이 역사적 수배자를 거꾸로 뒤리는 것이다.

2. 문 대통령을 언론 자유를 일러나 퇴임 6개월 전에 언론중재법 통과 강행은 권력자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법 조항 내용 자체가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하는 내용이다. 언론권을 장악적 폐쇄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이것이 해외 언론 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법을 비판하는 이유다. 언론이 스스로 고의·중과실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서 기사 자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열람자단장권 또한 비판 보도를 방해하는 독소 조항이다. 미국 외교 안보 전문가 디플로마트는 “비밀 언론사를 표적 삼은 세계 유일의 언론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8월 30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의 비판의 차이를 27일대로 미국과 8월 10일에 서는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국내 언론·시민단체와 법조·학계뿐 아니라 해외 언론 단체까지 일제히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한 달 늦게도 강행할 명분을 쌓아오는 작화에 대해 우려가 크다.

3. 문재인 정부는 언론중재법, 주권국민대치보호법, 제3차국가 기본법 등 불필요한 법을 강행해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난 10여 년 동안 법치국가처럼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지난 4년 반 동안 각종 제법금지법 주권국민대치보호법, 언론중재법 등 불필요한 과잉입법을 급조하여 국민을 더 불

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입법 시도는 “현행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모순되고 있다. 국가가 언론과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 즉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국가 운영이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 운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 통제 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전체주의 국가 시진핑의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이 법으로 이익보는 자는 국민이나 언론이 아니라 그 동안 무리한 적폐정산을 강행한 전체주의 통치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따른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등도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과 불확실한 개념은 결국 언론 보도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는 (현안) 모호하여 있다. 이 법이 ‘가짜 뉴스’라거나 ‘조작됐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언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 여지가 있다. 언론사가 소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 검열을 하면 필수적 정보 흐름이 제한된다. 정밀한 조처배상 조항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언론사가 소상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 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 등이 제한될 수 있다.

4. 현행법이 들어온 4년 반 동안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보수정권의 국정 농간에 대한 탄핵을 기회로 정권을 잡았고 적폐정산으로 시작했으나 과거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과 내로남불 조국 사태와 각종 법치제도 파괴로 민주화가 퇴행하고 정권 비판을 피해가는 관공시를 좌시함으로써 법치주의가 허물어지고 있다. 취임사에서는 “자작은 공정 과정은 평등,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으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집권 1년여에 진행하는 언론 중재법은 이러한 정권 세력의 불공정과 비리 추궁을 막기 위한 보호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써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언론규약에 위배된다”는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5. 강행는 선진국에도 언론자유나 각종 장치는 불공정과 전체주의화하고 있다.

올해 유엔경제개발위원회는 한국의 위상을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언론과 기자의 입을 막고 펜을 쓰지 못하게 억압하고, 언론과 기자의 자유에 대한 손해 배상과 징벌금을 강행 통 파시켜 주고 있다. 이미 조국 가족이나 이상직 의원

의 사저에서 보듯이 언론의 보도가 없었으면 저들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린이 간 유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책자집으로 약속한 대로 언론중재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마이크로자협회(M) 국제 커뮤니티 센터 박스스 공동 의장은 지난 8월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독재자는 항상 그렇게 한다”며 “국도의 실랑이를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법을 자주 만든다. 집값 잡겠다고 급조한 법 때문에 국민은 더 불행해졌다. 대동영이 이 잘못된 언론 통제를 폐기하라고 하지 않으면 전방 언론중재법은 자신 퇴임후 보복법이라는 비난이 맞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현 정부는 부끄러움과 권력으로 해결하려 든다. 국민세금으로 각종 선심으로 국민 고통을 시라한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의 비판을 잠재우고 국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시민생활의 자유가 퇴행 중이다. 정부 통제가 심해지면서 방역 통제국가로 변해간다. 폐쇄적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하늘을 찌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군사정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운 사람들이 문재민 정권 해산을 자처하고 있는데도 그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관망한다”고 했다. 법안 강행 처리 배경으로는 “내년 9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하여 국회의 일이라고 패자거나 숨지 말고 스스로 법안을 폐기하도록 하는 국정 책자집의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 지도자는 자화자찬하고 자기와 파당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국가적 어려움에 책임지고 남모르는 짐을 지고 국민 행복(國民幸福)의 과제를 위하여 고심하고 최후적으로는 성신정인(成身正人)하는 자다.

7. 정부와 여당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기를 선진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모든 것을 보이고 있다. 180이라는 의회를 믿고 국회를 통치하여 조종하려 들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행복을 느끼게 할 언론자유를 신장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의 참된 여론을 듣고서 나라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21년 9월 29일

실화를 꾸리는 나비들

신간 안내

싱글레어 퍼거슨의 우리가 교회사



싱글레어 퍼거슨의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닐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갈 주교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임을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한다. 예배, 성경 공부, 세례, 기도, 성찬식과 성도의 교제, 봉사, 섬김, 전도라는 교회의 기능과 기쁨을 되돌아보게 하여 성도 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을 깨닫도록 한다. 성경을 바탕으로 주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때 할로로 세상 가운데서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성경적 해답과 권면을 전하고 있다.

저자/역자 : 싱글레어 퍼거슨/전영미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1-09-15 | (148*204mm 286p | 판매가 : 17,000원

왕의 재정 1(100쇄 기념 리커버 에디션)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왕의 재정 1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성경 에센스

복음주의 성경신학자 김윤희 박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는 부박을 받았다. 본서는 이 요청에 대한 저자의 응답으로, 저자가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들을 위해 내놓은 핵심 편찬 개론서다. 동행의 “성경 에센스” 채널은 5년 만에 나오는 구약성서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만큼 성도를 위해 성경 진리의 열을 특별히 해설한 책이다. 이제, 그간의 텍스트로 따라가며 읽고, 한층 더 정밀한 내용을 머릿속에 축적시킬 수 있다. 또한 책의 5년 간의 영성이 본문에 수록되어, 3-4주에 걸쳐 성경의 열을 누리고 복음의 열을 누릴 수 있다. 권별 서지, 잠미 서지, 주제, 등장인물, 목차, 줄거리는 물론 핵심주제와 요약 박스도 효과적으로 성경 통독을 돕는다.

저자 : 김윤희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 2021-09-15 | (135*200mm 288p | 판매가 : 15,000원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로마서 정독하기

해외취업 영어면접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

성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실전가이드 특강 진행

대학일자리센터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성경대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관련정보 습득프로그램 영어면접 대비 특강과 개별 모의면접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세부 구성은 15일에 영어면접 실전 가이드 영어면접 대비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취업(외국 계약) 면접 질문 리스트를 미리 준비하여 해당 질문에 의도된 면접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19일부터 22일까지는 영어 모의 면접을 실전에 진행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면접에 대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외취업 전문 컨설턴트와 개별 영어 모의 면접 이후 스크린에 대한 피드백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성경대학교 이준서 대학일자리개발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언택트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해외 및 외국계 기업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역량을 높여 실전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차별 법칙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국토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사이트 :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박경호 헬라어 번역성경 New 마태복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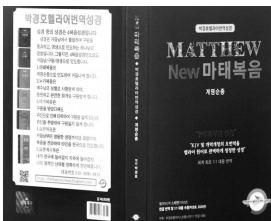
일대일 직역 방식의 번역 방식, 완전 직역에 성공

헬라어와 헬라어의 최고 권위자를 꼽는 박경호 원장(헬라어·번역)은 번역원 원장이 최근에 기증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수많은 오역현을 바로잡은, 박경호 헬라어 번역성경 New 마태복음을 출간해 많은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New 마태복음은 기존에 번역한 마태복음과는 달리, 공식성경본문에 해당하는 스페인(1550)판에서 사본을 번역한, 원어와 어원을 파악하고 일대일 직역 방식으로 번역한 국내 최초의 번역성경으로 모든 한글과 및 영어 번역본은 헬라어 한 단어를 문맥의 상황에 따라 여러 단어로 이해하지만, 박경호 헬라어 번역성경 New 마태복음은 원어를 한글 한 단어로 고정시키는 일대일 직역 방식의 번역 방식이며, 20년의 끈질긴 노력으로, 완전 직역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성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신학생, 일반 평신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기독교인들의 필독서로 주목받고 있는 New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주해본 12장으로 구분하고,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절을 만들고, 각 절에 제목을 붙임으로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성경으로 아인되도록



MATTHEW New 마태복음

MATTHEW New 마태복음

MATTHEW New 마태복음

MATTHEW New 마태복음

MATTHEW New 마태복음

MATTHEW New 마태복음

MATTHEW New 마태복음

MATTHEW New 마태복음

말씀 그대로 실현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번역의 과정은 지루함과 싸움이라 할 수 있으며, 수정하는 일에도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요구되기 때문에 성경번역을 맡겨줄 쉬운 것이 아니라면서 시간과 열정과 신심이 인생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약속을 말한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히 하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데 자유에 가나니 배워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이를 멈출 수 없다고 약속하는 굳게 다하고 있다.

박경호 원장은 계속해서 박경호 헬라어번역성경 모세오경, 예사서, 시가서, 신약서, 박경호 헬라어번역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을 순차적으로 출판할 계획이며, 박경호 헬라어·번역이 66권의 성경을 번역한 후, 박경호 헬라어·번역이 66권의 성경을 영어 및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 및 출판하여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구민영

010-8695-5725,

2021 아동권리그림공모전 10월 마감

홀트아동복지회, '홀트, 세움' 실시 전국 초등생 모두 참여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이수연)는 2021 아동권리그림 공모전 '홀트, 세움 아동'의 목적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를 실시한다.

2021 아동권리그림공모전 '홀트, 세움'은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된 공모전으로 전국 초등학생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진행되는 공모전의 주제는 '코로나나 때때로야? 코로나가 빼앗은 아동의 권리'로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해당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린 후 사진을 찍어 공모전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29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수상작은 UN 아동 권리협약(UNCRO) 제정된 '세

계 아동의 날'을 기념하며 11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초등학생부)은 최우수상(홀트아동복지회장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상), 우수상과 장려상, 입상 등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수연 회장은 "아동들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아동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본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후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드비전, 강동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후원

'아침머고' 사업과 주말 동안 결식 위험아동에 식사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정환)이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담임목사 김하늘)로부터 국내 결식아동들을 위한 후원금 5,532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명성교회 5,532명의 성도가 함께 신성회와 성경봉사 캠페인을 통해 1명당 1만원씩 적립, 국내 결식아동들을 위한 성금으로 조성했다.

후원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가장 행방이 어려운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강동구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아침머고' 사업과 주말 동안 결식 위험이 있는 서울지역 50명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주말에 뭐하니?'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명성교회 김하늘 목사는 "전교인 성경 필사와 교회의 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결식아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라고 말했다.

월드비전 조정환 회장은 "결식아동들을 위해 고인돌이 다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다고 하니 더욱 은혜롭고 감사하다"라며 "소중한 후원금이 아동들의 귀한 식사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은 전국 38만 결식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도시락' 사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하루 한 끼조차 먹기 어려운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주 1회 1인 1끼의 저녁 도시락을 제공하는 월드비전의 대표 결식아동지원사업이다.

지난 200년부터 21년 동안 전문 영양사가 구성한 영양 기동반 도시락을 전달해오고 있다.

제10회 신학대 찬양제 온라인으로 개최

9개 신학대 찬양팀 참가 코로나로 독창, 중창, 4중창만 경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준준 목사는 지난 10월 7일(목)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교로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제10회 한국장로교신학대학교 찬양제를 개최하고 활동가들이 좋은 경연을 맞아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찬양으로 더욱 힘을 얻고 굳건한 믿음생활을 다짐했다.

코로나19로 관眾이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된 찬양제에는 정로화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충신대학교, 안양대학교,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 회교단 산하 9개 신학대 9개 찬양팀이 참가했다.

한국장로교신학대학교 찬양제는 찬양을 통해 신학대학 간의 교류와 공동의 신앙고백으로 하나됨을 영감을 주기 위해 열리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변창배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 규모를 축소해 독창, 중창, 4중창만 경연을 실시했다. 찬양제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경명 목사(예배위원장)의 인도로 김종무 장로(예배위원장)의

기도, 출연자 중 정희영 학생(장신대 신대원)이 성경 봉독 후 헌영은 목사(상임회장)가 '오산지에 임하는 능력'(심상 16:6-2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는 김종준 목사(대표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장기기증 가치 알리기 위한 재능기부

'오케이 광자매' 출연 배우 하재숙

최근 KBS2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에서 '신미안'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하재숙 씨가 특별한 나눔에 참여했다.

(세시봉)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화)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디오에서 진행된 본부 소식이 '선한인'과 유튜버 채널 '다들아끼'에 배우 하재숙 씨가 재능기부로 출연했다고 밝혔다.

2004년 자신의 생일을 맞아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하재숙 씨는 지난해 자신의 SNS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공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명나눔에 앞장서는 재능천사님 본받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함께해주세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맡

삼고 있었는데, 재숙님 보며 용기 내어 동참합니다!" 등의 응원 댓글을 전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약속했다.

이후 그녀는 지난 5월 본부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 한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날인 'Rose Day Donor Family' 캠페인에 참여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SNS를 통



해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구한 6천여명의 뇌사 장기기증인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5초후 뒤약 합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금의 효능)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담당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전도!

이제는 동대문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매기꼴을 들고 찬송을 했다. 나는 2시간 동안 찬양했다. 가이저 하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할 때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안수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많이 보았다. 마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기도를 같이 따라 하고 이름과 전회번호, 주소까지도 알려주었다. 이번에 도나는 그의 마귀에 손을 얹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안수 기도를 마치고 그는 나에게 신발 두 켤레와 피로회복제를 사주었다. 오늘 그 사람과 전도한 예배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제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그 순간 찬양을 하고 있던 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니 또 다시 헌금을

했다. 세상에 이런 전도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가족세트전도는 창립자로부터 전도자의 길 43년을 걸어온 박영수 목사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도법이다. 박영수 목사는 교회성장의 빠른 길은 오직 전도법이며 전도는 이혼이 아니라 실제사건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령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늘 전도에 합세하. 나의 소망은 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전국의 그날까지 찬양하고 전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외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강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랑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랑**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1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 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목사)

에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에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에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웅 목사)

에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초대시

전혜성 // 은혜와 진리교회 권사

생명 바~~람

사람의 마음에 약속없이
찾아드는 바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1% 채워지지 않는 바람입니다.
만져지지 않는 바람입니다.
잠잠한 듯.. 실상은 거친 바람입니다.

지금..
고요히 한줄기 바람이 들어옵니다.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린 그 바람은
벼랑 끝에서 생명바람이 되어 나를 일으킵니다.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공허함
영혼을 깨우는 바람입니다.

알 수 없는 풍요로움이
가슴 가득 채워지고

영혼이 신음하던 바로 그 자리에
따뜻하고 훈난 생명 바람 불어오니
차디찬 심장 녹아지고 사랑의 불씨가 피어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방황의 자리
이제는 평안함이 자리하여 주인이 된 곳
1% 부족함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자리였습니다.

은식구가 잠든 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앉아
눈을 감고 바람을 느낀다.
창조주 내 아버지라 만든 바람
그분의 손길이 내 마음을 어루만진다.
구원의 감격이 이 순간 감사를 이룬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선포식’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지난 10월 7일(목) 오전 국군중앙교회에서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비전선포식으로 진행됐다.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

에서는 이희찬 목사(한국군종목사단장, 해군 대령)

와 정혜성 집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육군 소장이기도, 위정민 집사가 특별찬양, 박선희 목사(제대 군종교구장 명예이사장)가 설교, 최희범 목사(영예이사)가 축도했다.

박선희 목사는 마 8:5-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교회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교와 제국 선교의 기초를 놓았다”며 “굳은 이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의 높은 경륜, 지혜, 심리를 깨달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여리함이 되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이어진 비전선포식은 오정호 목사(세로남교회 담임, 한국군선교 군종교구 부이사장)의 사회, 권오성 장로의 개회사(비전2030 실천운동본부장), 영상 시청, 최석환 목사(육군군종목사단장 육군 대령)의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소개, 결의문 낭독, 군종 목사(파송교단 총회장)들의 축하와 격려, 기도, 애국 자제장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매년 육·해·공군, 해병대 신규 세력자 6만 명과 기존 세력자 4만 명 등 10만 명을 1,004개 군교회에서 양육·관리하고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운동이다.



사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한다

정치인의 말 한 마디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화가 나도 할 말이 없고 해선 안 될 말이 있다. 다 맡아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불고파직하고 위대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성을 초월하는 폭군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같은 당 안에서라도 상대 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규약을 보내겠다고 한 건도를 지나쳤다. 말을 한다. 이 정도를 참지 못하고 폭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의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어찌 될까? 반대자들의 입을 꼭 닫아도 못하게 봉하려고 언론장악에 대해서 그렇기도 강력하게 시행을 주장했나? 여당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언론장악은 약법이라기보다 반대하고 유언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인들이 한국을 규탄하자 언론장악을 연일까지 야 야가 추가 논쟁하기로 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마쳤다.

민일 정권이 지속된다면 소를 끼치는 이들이 일어난 지도 모르겠는 생각이 가슴이 설레게 한다. 불교파적, 원리안이라는 말이 여론의 지지를 위하여 일어난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외교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고 하니 마음은 더욱 답답해진다. 북한의 의도는 한결같다. 남한은 북한의 말 많마디에 울고 웃는다. 북한의 김영정과 김영주 연재 북

한대사의 말을 종합해 판단해보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서 그들의 주장을 반복했다. 자신들의 미시원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하자 김영정은 이중 기준이라고 했고 김영주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외쳤다.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의 1단계가 핵미사일훈련 영구 중단이라는 주장을 단 것이다.

문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 회담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관심사는 이번 게 아니라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나아가 재해해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은 남북통일선을 마치 생색이라도 내듯 하며 다시 연설했다. 진정한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욕심과 기득권 저변이다. 성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사회원 자원이 예전에 거주한 지 사해 삼남편이라 사해 삼남편이 바라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예로 땅에서 나왔을즉 이 땅은 그들을 예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법이라 이사회원 자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출 12:37-42)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

법원의 부적절한 판결 안보를 위협한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 2부(주심 판사 오영교)는 고인이 된 모 회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분류심판청구’ 소송에서 원고(법인)인 고인이 되었고 유족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성정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여성으로 보아야 하고, 육군이 이를 고의 심산정예를 초월한 사유로 보고 전역을 병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고인이 된 모 회사는 지난 2019년 남상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계속하여 군인(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했지만, 육군은 이를 심산정예 판정을 통해 전역처분을 내렸으니,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올해 3월 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선은 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관한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사명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불합법을 등한히 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소송에 이르도록 부추겼다면 과연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태도이다. 이런 판결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해하는 일이 된다. 육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즉시 항소(항소)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 관한 것이고,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하여 지나친 인권 감성주의나 진보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해 주는 법의 균형과 중점을 찾아주어야 하는 사명이다. 한편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수많은 불복 사태가 감정을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이것이 국가안보에 엄청난 허점을 만들어 주게 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정책위원회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건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www.dkft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다운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완공되어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산지병원 증경장한명영 부사와 고영관 부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 A, B)은들, 단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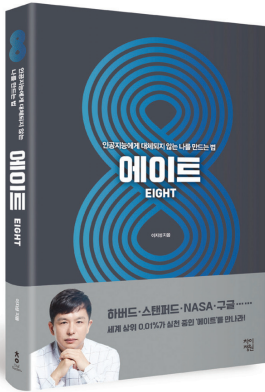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익로길로 479번길 43

120쇄 돌파! 화제의 종합 베스트셀러!

당신이 알아야 할 인공지능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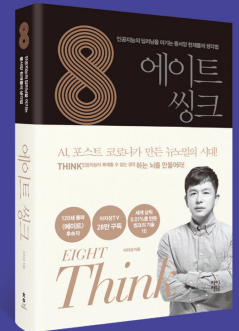


이장성 지음 | 값 17,000원

하버드, 스탠퍼드, NASA, 구글...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에이트'를 만나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모두를 위한 책에이트
EIGHT

에이트 실전편

인공지능을 이기는
'씽크'의 힘!

에이트 씽크

문의전화 02-334-7932

차이
저작권

홈페이지: www.ucts.org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www.ucts.org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전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호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등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